

어문연구 제6권 1996년 2월

## **Miriam, Paul, and The Narrator in Sons and Lovers**

**Jeong-Gil, Park\***

In the study of the "Miriam, Paul, and The Narrator in Sons and Lovers" my main concern was twofold :

Firstly, I was to try and understand Lawrence's portrait of Miriam in relation to the love-affairs with young Paul.

Secondly, It was to show what was the narrator's attitude towards the two lovers and to see the narrator's attempts in shaping Miriam's view as much as Paul's in his narrative statements.

「To do this I focused my discussion on the part two of the book, and I think that the following summary will be helpful to the readers of this essay」

The connection between Miriam and Paul are intriguing, if not arresting. Miriam leads Paul to fuller consciousness of his intuitions. At the same time Paul's sayings give Miriam a feeling of life. Later, when Miriam and Paul grow up more and confronted with the issue of physical communion, Miriam's religious and spiritual proclivities prevent her from being able to relax sexually, from being able to yield herself to the body's impersonal swoon of desire. This stiffness, this inability to relax that turns Paul against Miriam, for though he is plainly

---

\* Prof. J. G. Park

under his mother's influence in breaking off the relationship. In short, Paul believes that Miriam is too serious and too spiritual; the narrator depicts Miriam is overly religious, overly romantic, and overly sensitive; thus Paul attributes the torment and ultimate failure of their relationship to her "spirituality", whereas Miriam urges to the inordinate influence of Mrs Morel.

## 1

소설 「아들과 연인」에서 나타나고 있는 「Paul」과 「Miriam」(이하 「폴」, 「미리엄」)의 관계는 「Lawrence」와 「Jessie」(이하 「로렌스」, 「제시」)와의 실제의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에 속한다. 그들은 「Eastwood」(이하 「이스트우드」)라는 탄광촌의 인근에 살면서 교우하고, 공부하고, 여행도 하면서 청춘시절을 함께 보낸 사이로, 나중에는 둘 다 선생님이 된, 당대로서는 드물게 보는 고등교육을 받은 몇 안되는 사람들 중에 드는 그런 사람이었다.

「폴」과 「미리엄」의 관계가 말해주고 있는 바와 같이 두사람은 실제로 사랑하는 사이였으나 - He had(…) his four - year unofficial engagement to Jessie Chambers. 1 - 끝내 갈라서고 만 아픈 추억을 가진 사이이다. 실제의 상황이 그러했듯 소설속에 나타난 두 사람의 관계도 비극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음이 여러 갈래로 설명이 되고 있음을 본다. 그리고 그러한 징후를 그들 관계의 반목을 설명할 수 있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소설속에서 주인공들이 서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narration」을 보면 그들이 반목하게 된 애증의 이유를 쉽게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제가 가능한 것이라면 여기에 나타난 「narrative phrases」는 이 소설의 성격상 작가 자신의 주관이 가장 많이 개입할 수 있다는 예찰 또한 가능한 것이라고 볼 때 갈등하는 두 사람의 입장에 대한 원인 규명에 대한 「나레이터」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는 「나레이터」의 말에서 「폴」과 「미리엄」의 사이에 얽혀 있는 상호간의 역학 관계는 물론, 작가가 자전적 소설이라고 불리어지는 이 이야기에서 특별히 창도하고자 하는 그 무슨 뜻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 2

「나레이터」에 의하면 「미리엄」은 로맨틱한 생각을 품고 있으며 어디를 가나 「윌터 스코트」의 소설에 등장하는 여주인공 쯤으로 못 남성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고 싶고, 때로는 자신이 무슨 여왕이거나 한 것처럼 상상하기도 하고, 비록 지금은 자기가 돼지지기의 탈을 쓰고 있는 여자로 취급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높히 봐 주는 인물이기를 마음속으로 기약하고 있을 만큼 야심으로 뭉쳐진 소녀인 것이다.

그런데 「미리엄」은 자신의 이런 신념을 당차게도 공부를 통해서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차별화의 기회를 고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그녀의 일반적인 성격외에도 그녀에게는 어머니 「Leivers」(이하 「레이버즈」)부인의 영향 때문에 온 집안이 종교적인 분위기에 젖어 있는 데다가 그녀 또한 온갖 것에 종교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강렬한 신심 때문에 모든 사물을 대함에 있어서 그것을 가지기에 앞서 우선 자기의 상상 속에서나 자기의 영혼의 힘을 빌어 자연이나 사물 모두를 우선 인격화 시켜 놓은 다음, 비로소 그것이 자기 내부에서 생명을 갖는 것이 되는 특이한 인식 절차를 습관화 해두고 있다.

그녀는 이 세상이 온통 수녀원의 정원이거나 낙원이라고 생각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최악이나 지식도 존재하지 않는 세상썸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 그녀는 현실 세계와 아주 동떨어진 감각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세인이 그녀를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일 수 밖에 없는, 일상생활과 단절된 생활을 살아가는 여자인 것이다.

자기가 남들과는 무엇인가 다르다고 믿고 있는 것이 「미리엄」이 항상 내심 깊숙히 숨겨 놓고 있는 자존심의 전부이다. 그리고 그녀는 집안의

오빠들과는 언제나 싸움을 벌이는가 하면 그들을 야만적이고 무식쟁이로 보아 남성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무시해 온 것이다. 아버지 조차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런데 여기에 색다른 모범이 나타난 것이다.

「폴」은 탄생의 신비에서 발견되는 일련의 신비감 외에도 그가 가내에서 아버지를 대신하여 가정경제를 꾸리고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특별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폭넓은 인식이 「레이버즈」가의 사람들과의 친교를 통해서 서서히 인식되어가고 있으며 「폴」역시도 내심으로는 그런 자부심에 이끌려 어느새 자신은 이집의 가정교사처럼 되어 있다.

이런 청년이 「미리엄」에게는 ‘민첩하고 경쾌하며 상냥하기도 한데다가 슬픔도 느낄 줄 알고 영리하여 아는 것도 많은, 거기다가 가족의 한 사람을 잃은 경험도 가진’ 소년으로, 따지고 보면 별로 깊지 않은 「폴」의 학식이 소녀의 눈에는 하늘같이 높은 왕자님 쯤으로 되어 보이는, 그리하여 「미리엄」에게는 「폴」이 매우 뚜렷한 흠모의 대상으로 그 위상이 높히 설정되어 있다.

「폴」이 이 소녀를 처음부터 눈여겨 본 것은 아니었다. 사실은 정반대이다. 「미리엄」이 「폴」을 주목한 것은 그가 심하게 앓고 있음을 알고는 쇠약해진 그를 간호할 기회가 있게 되면 그에게 사랑을 쏟을 수 있을 것이라는 소녀다운 지배욕 때문이었다.

이런 점에서 「미리엄」은 정신면에서 낭만적이다. 인생에 대한 진지한 감정을 지니고 있는 데다가 종교적이고도 명상적인 태도가 그녀의 표정속에 늘 담겨 있다. 「폴」은 이런 그녀의 표정에서 「미리엄」이 가진 전 생명을 읽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폴」이 이 집에서 느끼고 있는 특별히 고조된 한가지 감정이 있다. 그것은 「레이버즈」 부인에 대한 「폴」의 특별한 관심으로 그가 부인과 함께 있으면 만사는 그 무슨 종교적인 강렬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폴」자신도 종교적이다. 그도 교회에 나가고 있으며 이 집안의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무엇인가 포착되는 어떤 생명력의 사실을 감지하는 듯 하며, 이런 것을 그는 지나치게 논리적인 자기의 어머니에게서 느끼지 못하는 미묘하고도 색다른 매력이 자신에게로 밀려오는 것 같은 감정으로 받아 들이는 것이

다.

### 3

세월이 감에 따라 「폴」은 Willey Farm 윌리 농장의 「레이버즈」 부인은 물론, 모든 가족과 함께 「미리엄」과도 자연스럽게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리엄」과 「폴」은 목요일이면 규칙적으로 도서관에 간다. 지적 경험을 나누며 교우하는 그들의 만남은 「미리엄」에게는 특히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다. 그리고 「미리엄」은 이 때를 놓치지 않고 「폴」이 그림에 정진하도록 계속해서 자극을 주고 격려를 잊지 않고 있다. 「미리엄」의 그와 같은 열정이 「폴」의 마음을 따뜻이 녹이고 있는 것이다.

「폴」은 「미리엄」과 자기 사이의 관계가 전혀 추상적이고 순결한 관계라고 확신하고 있다. 「폴」은 자신이 분별력이 있는 양식의 소유자임을 자인하고 있는 반면에 「미리엄」은 자신이야말로 고매한 품성의 소유자임을 의심치 않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두사람 모두가 육체적으로나 정신면에서 성숙이 늦은 상태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두 사람을 보는 「모렐」여사의 시각이 전혀 다르다는 데 있다. 그녀는 「폴」이 「미리엄」과 연애질을 하면서 밤을 잊은채 시간이 늦도록 돌아다니는 것이 못마땅하여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어머니는 「미리엄」이 한사코 미웁고 싫은 것이다.

어머니의 간섭이 있었음에도 두 사람의 친교는 점점 강도를 더해 가고 있다. 「폴」의 나이가 19세에 접어들고 Nott.에 일자리를 구하자 적당한 경제력도 가지게 되고 평소에 좋아하던 그림도 그리게 되니 그의 생활은 활기가 되살아 나고 행복해 하는 것이다. 부활절 휴가를 맞아서 는 근교의 유적지에 「미리엄」과 같이 여행도 하고, 이제 두사람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미리엄」에게 있어서 「폴」이 그녀를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일은 성 수태고지를 듣는 것 만큼이나 가슴 설래는 사건이지만 정작 「미리엄」이 「폴」과의 관계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바는 정신적인 교감이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폴」이 갖는 육체적 욕구의 여러 징후들이 「미리엄」

의 사고방식에 대응하여 「폴」이 느끼는 감정에 충실한 모습으로 순탄하게 풀리지 못하고 「미리엄」이 모든것을 정신화 하려 한다고 함으로써 「미리엄」의 욕구방식과 충돌하고 있음을 본다<sup>1)</sup>.

「폴」의 감각적이고도 충동적인 성의식은 영적교류를 고집하고 있는 「미리엄」과는 반드시 짝고 넘어가야 하는 괴로운 과제일 수 밖에 없다. 끊임없이 잉태와 출산이 계속되고 있는 이 농원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성의식은 두사람 모두의 고통이 되고 있다. 육체의 접촉을 꺼리는 것이 「미리엄」의 종교적 금기 사유에 전적으로 원인이 있다고 책임을 전가시키기에는 「폴」에게도 문제는 있는 것이다. 「폴」 역시도 「미리엄」이 요구하는 육체적 접촉을 피해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sup>2)</sup>.

그녀가 팔짱을 낄라치면 이는 그에게 육체적 고통을 일으켰다. 그리고 나면 「폴」은 의식의 분열로 괴로움에 빠지는 것이다. '간혹 같이 걷고 있을 때에 「미리엄」은 머뭇머뭇 자기팔을 그의 팔에 갖다 대는 일이 있었다. 그럴때는 반드시 그가 성을 내었다. 물론 그 여자는 그것을 알고 한 노릇이었다.' 라는 「나레이터」의 설명은 「폴」에 대한 「미리엄」의 의도와 이에 대응하는 「폴」의 반응을 잘 설명해 주는 말이라 하겠다.

이 시점은 「미리엄」의 영혼이 「폴」과 접촉하고 그의 전부를 소유하는 추상화의 전 단계에 들어서는 순간으로 「폴」에게는 의식의 분열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격통의 시간이다. 그런데 이때 「미리엄」이 자신을 되돌아 보고 그녀가 「폴」을 그렇게도 좋아할 수 없음을 알고는 짐짓 놀라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폴」이 알고 있는게 아닐까? 「미리엄」은 그녀의 흥분을 수치로 알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자기속에서 또

1) 필자주 ; 「미리엄」에 대한 묘사가 있을적 마다 항상 따라 다니는 종교적이라는 꼬리표는 자연이나 사물을 인격화하여 이를 「미리엄」이 갖는 영혼이라는 추상으로 여과 과정을 거쳐 받아 들인다는 「미리엄」 특유의 자연이나 사물에 대한 인지 과정상의 틀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2) 「로렌스」가 「제시」를 만났을 때 그녀는 「로렌스」에 비해 한살 정도 작은 나이였다. 그녀는 그의 비범함에 감탄하였고 그의 재능에 고무되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관계이다. 「로렌스」와는 달리 그녀는 자유로이 사랑에 빠질 수 있었다. 「미리엄」이 언제든지 「폴」을 사랑할 수 있었던 반면에 「로렌스」는 「제시」가 사랑에 빠질 수 있을 때에 겨우 사랑에 빠질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두 사람 모두에게 고통으로 작용했다. 이같은 부조화에도 불구하고 S/L에서 「로렌스」는 그 이유를 「미리엄」에 미루고 그 책임이 「미리엄」에게 있다고 썼다. - Son of Woman - P. 30 - 1, Murry

하나의 자신을 발견한다. 그리고 발견된 또 하나의 자신이 「폴」을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안 것이다.

「폴」을 향한 그녀의 집념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는 그녀의 기도말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런데 그녀의 기도 말에는 최소한 세가지의 자기 의지가 담겨 있다 ; - ‘오 하느님, 내가 「폴」을 사랑하지 않게 해 주소서. 그를 사랑해서 안되는 것이라면 사랑하지 않게 해 주소서’ .-

맨 처음의 이 기도속에는 자기 회생의 황홀에 잠겨 신과 자신을 동일시 하는 영혼과의 교감이 있다. 그는 이 기도 속에서 자기가 영혼과 함께 하고 있다는 기분만으로도 행복하다.

두번째의 기도말에서 우리는 「미리엄」의 종교적 의지가 그 얼마나 결연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 - 그를 사랑하는 것이 어째서 나쁘단 말인가? 사랑은 하느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사랑은 「미리엄」에게 수치심을 일으키게 했다. 그것은 「폴」의 탓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폴」의 일이 아니라, 「미리엄」 자신의 문제이다. 「미리엄」과 하느님과의 문제이다. 자기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 「폴」의 제물이나 자기 자신의 제물이 아니라, 하느님의 제물이다. - 라는 생각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목되는 것은 이 기도 말속에 나타난 영적교류에 대한 「미리엄」의 의지이다. - 그렇지만 하느님, 내가 그이를 사랑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그이를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 인류의 영혼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같이. 훌륭히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이는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 그녀는 이렇게 기도하며 스스로 그말에 깊이 감동하고 있다.

#### 4

본인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모렐」 부인의 개입은 우선 「미리엄」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과 공공연한 증오심을 내보이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되고 보니 ‘소녀와의 접촉으로 모처럼 따뜻해지고 노출된 「폴」의 영혼’은 위축되기 마련이다. 「미리엄」은 이미 「폴」의 청춘에서 매우 소중한 위치에 와 있고 「모렐」여사의 입장에



서 보면 「폴」이야 말로 자기의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될 기둥과 같은 것으로 상당역이며 그녀의 전부이다 싶은 존재인 것이다. 이라고 보면 「폴」과 「모렐」여사 사이에 놓인 갈등의 해결이란 곧 「폴」과 「미리엄」의 관계가 실패로 끝날 운명임을 시사하는 것이 된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근본이 어머니에게 있다는 의식이 내성화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의 양심에 내려진 고백은 「미리엄」에게는 냉혹한 결정일 수 밖에 없다.

「폴」은 그러므로 「모렐」 부인의 전형적인 아들이다. - he is a model son -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 - whatever I do, I do it unto my mother. - 2)에서 우리는 이 아들의 생명이 어머니에게로 지향된 의지의 맹목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예술적 재능이 보여준 두 차례에 걸친 수상으로 Nott.사회에서 장차 아들이 저명한 존재가 되리라는 기대에 어머니는 벌써부터 자신의 전도와 아들의 장래를 동일시하는 보상적 만족에 취해 있는 것이다.

어머니는 자기를 외롭게 만드는 「폴」을 상상할 수는 없다. 보통이면 막내가 제일 좋다지만 자신은 전혀 그렇지 않다. 「폴」에 대한 부인의 기대가 얼마나 큰가를 말해주는 것이리라. 「모렐」부인은 「폴」을 자기 곁에 묶어 두려는 의도를 좀더 노골화 한다. 그러한 부인의 의도는 「미리엄」을 향한 분노를 한층 더 증폭시켜 가는 부인의 언사에서 더욱 뚜렷해 진다. - 「폴」은 제발로 설 수 있는 인간은 영영 되지 못할 거야 - 그 년이 죄다 빨아 먹어 버릴 것이니까. -

부인의 「미리엄」에 대한 일방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폴」과 「미리엄」의 관계에 대한 부당한 진단은 그대로 「폴」의 고뇌와 연결되고 있다.

사랑과 열정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폴」이 「미리엄」을 멀리한 것은 사실이다. 「미리엄」또한 그의 성의식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미리엄」은 「폴」이 그녀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정열이란 들어설 자리가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 ; 사랑을 말하고 있는 양쪽이 서로들 관대함과 사려깊은 신중함을 내보이고는 있으나 두 사람의 관계에서 꼭 있어야 할 정열이 빠져 버린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미리엄」은 그녀의 육체를 정신에 종속시켰고 「폴」은 그의 정신을 육체에 종속시킨 가운데 두 사람의 열정과 욕구와 소망은 각각 뒤틀리고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미리엄」에 의한 Clara 「크레이러」의 등장은 어머니에게로 편향되어 있었던 지금까지의 「폴」을 서서히 그리고 우회적이기는 하나 자신의 감정적 진실이 과연 어디에 있나를 생각하게 하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과정에 들어서는 방향으로 상황 전환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음을 본다. 「미리엄」 때문에 죽을 끓여온 「폴」에 대한 어머니의 유감도 잠시 멈춘 상태에서 변화는 일어났던 것이다.

「폴」은 「미리엄」의 불어작문을 보면서 「미리엄」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그는 그녀의 사랑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폴」은 「미리엄」의 자신에 대한 사랑이 과분한 것이며 부적당하다고 생각한다. 「미리엄」이 자신에게 바치고 있는 사랑이 지나친 혜택이며,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 「폴」의 생각이다.

허물은 그 「자신」의 애정에 있는 것이지, 「미리엄」의 애정에 있는 것은 아님을 「폴」은 조용히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See S/L 255)

「미리엄」과의 관계에서 육체적 관계를 피하려고 한 쪽은 「폴」이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폴」을 향해 접근해 간 쪽은 「미리엄」이었던 것이다. 「모렐」 부인의 생각처럼 아들이 「미리엄」을 일방적으로 사랑한 것은 아니었다. 「폴」은 「미리엄」의 육체적 욕구를 달래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아는 것이다. 그는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없음을 또한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이 요구해 오면, - 「폴」의 호소에 「미리엄」이 마지못해 희생하는 식으로 - 그가 하자는 대로 해서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미리엄」의 결의를 내 보임으로써 「폴」이 취해야 하는 행동 방향을 「미리엄」의 희생으로 비껴가고 있는 것이다.

「미리엄」의 사랑이 과분하고 부적당함을 인식하는 것이라면 최소한 그녀에 대한 자신의 욕구를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스스로 상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미리엄」에 대한 자신의 주장 - 가령 그것이 「미리엄」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 은 「미리엄」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된다. 이

런 점으로 보아 「미리엄」과 「폴」의 관계에서 사랑의 결합이란 처음부터 계획된 파국이었던 생각을 가지게 됨은 오히려 자연스런 추리라 할 것이다.

Murry가 Lawrence의 운명에는 행복이란 아예 있지도 않았다 - Happiness in love was not in Lawrence destiny. 3」- 라고 한 말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폴」에게서 극복되어야 할 성의식의 문제는 「크레이러」의 등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나 「폴」에게서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아픈 상처일 뿐이다. 또 하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 그것은 「모렐」부인과 「미리엄」간의 불평등한 싸움 - unequal battle - 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 「폴」에게 남아 있는 고뇌의 전부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폴」은 역시 어머니 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폴」은 빵을 태워버린 실수를 「미리엄」 때문이라고 믿고 있는 어머니의 빈정댐을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도 곧이 들으려 하지 않는 어머니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어머니는 자기가 보기에는 아들이 '그 애 밖에는 아무것도 좋아하는 것이 없는 것 같다' 고 단정을 내린다. 부인의 화풀이는 절정을 이루는 느낌이다 :

'애미는 늙었다.그러니 난 비켜서 있으면 된다. (...)난 너의 뒷 치닥거리나 하면 되지 - 나머진 「미리엄」이 해 줄 것이니 말이다'. (...)난 정말 참지 못하겠어. 다른 여자라면 또 몰라도 - 「미리엄」은 싫어. 그랜 온통 독차지하구 어머니 몫은 조금도 남겨주지 않는 구나. -' (...) '그리고 난 - 너도 알잖니 - 한번도 남편다운 남편을 가져보지 못했어, 정말로 - ' S/L 261

위에서 보는 바 대로 「모렐」부인은 「폴」을 강제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설복의 문제가 아닌 두 사람이 공유하는 합일된 정신의 한 편린과 같은 것이 되어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인의 호소는 「폴」이 어머니의 슬하에서 자라나면서 자연스럽게 내성화의 과정을 거친 자질에 속하는 것으로 어머니와 자기 사이의 정신적인 합의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폴」이 아직은 「미리엄」을 떠나 있지 않으면서도 어머니에게 「미리

업」을 사랑하지 않겠다고 말을 해 버린 것은 ‘체념의 쓸쓸한 평화’로 마음속에 남아 있으나, 「폴」이 어머니의 재촉에 ‘아니에요, 어머니 - 나는 미리엄을 정말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난 어머니한테 돌아 오고 싶은 걸요’(...) ‘글쎄 어머니, 난 「미리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S/L 261 - 하고 간단히 「미리엄」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의 감정이 자신의 일상 생활에 위안이 되고 정신적인 힘이 되므로 내심으로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자기 판단이 섰기 때문일 것이다. 「미리엄」과의 육체적 교섭은 「폴」 자신부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미리엄」보다는 우위에 두었던 것 같다.

「폴」은 이로서 사랑과 열정이 각각인 사람 - divided man - 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는 「미리엄」에 대한 스스로의 욕구에 집념을 신지 않는 대신에 상대의 열정을 감당하기가 벅차다 하여 그 열정을 피하는 수단으로 상대의 욕구를 피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왕성하지도 못한 정열을 행동하는 정열인 양 진실을 감추고 남을 깎아 내리고 있다.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실패의 동인을 보자. 그들은 실패의 원인을 서로 상대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폴」은 「미리엄」이 ‘자기를 원체 정신적인 사람으로 만든다고 말하고 자신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 See S/L 232 - 고 불평해 왔다. 「미리엄」은 그들의 사랑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을 「폴」에 대한 부인의 유별난 영향력 행사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폴」이 「미리엄」의 동생에 대한 그녀의 애정의 표시를 극단으로 몰아 갔듯이 이번에는 꽃잎에 가만이 입술을 문지르는 「미리엄」을 두고 ‘사물의 혼을 찢어낸다’ 느니, ‘당신이 그 무슨 부족을 느끼기 때문에 남의 사랑을 빨고 또 빨아서 자신을 충족시키려 든다’ 느니, ‘당신은 마치 사랑에 굶주린 사람같이, 항상 사랑을 구걸하고 있다.’ 는 말하며, ‘당신은 꽃에서 조차 아침을 하고 있는 것,’ - See S/L 268 - 이라는 등의 험구로 자신의 무능을 그녀를 책망하는 것으로 덮어 버리려 하고 있음을 본다.

## 5

「폴」과 「미리엄」의 갈등은 두사람 모두에게 우리가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 주었다. 「미리엄」은 「폴」이 결코 자기의 것이 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이제 「폴」과 같이는 끝내 '행복한 인생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 S/L 265 - 는 예감을 가지는 것이다.

그들이 느끼는 공허와 무기력으로 인하여 서로의 흡인력이 소진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정신적인 사랑을 바칠 수가 있습니다.(...)그러나 육체안에 구현된 정열은 바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수녀입니다'. 「폴」은 갑자기 '우리는 헤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는 말을 한다.

「미리엄」은 「폴」이 자신에게서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 그녀는 「폴」이 자신을 욕구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기가 사랑하는 것은 「폴」의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교류를 통한 그에 대한 사랑이라는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미리엄」은 지금 자신이 「폴」의 영혼을 쥐고 있음을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녀의 가슴 속에는 '나 없이 너는 이 세상을 살아 나가지 못하리라' - S/L 279 - 는 강한 자만의 정신 또한 깃들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리엄」은 지금 당장에 만족을 몰라 하는 「폴」의 성마름에 곧바로 반응을 들어내 보이는 행동 대신에 「폴」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 해도 나=「미리엄」밖에 더 없다는 생각에 차분히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다. 「미리엄」은 「폴」이 결국에는 「크레이러」를 향한 낮은 데로의 욕망 보다는 자신에게로 지향된 높은 데로의 욕망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 있는 것이다.

「모렐」 부인은 「크레이러」와 「폴」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한 편이다. 어머니는 아들 「폴」을 자기가 지키는 일이 무엇 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는 「크레이러」에게서는 자신의 권위가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선 것처럼 그녀에 대해서는 「미리엄」에게 보여 주었던 적개심 따위는 찾아 보기 어렵다. 「폴」

이 느끼는 감흥에서도 커다란 차이가 있다. 「크레이러」가 노란 앵초 - cowslip - 의 향기를 맡고 있는 것을 보는 「폴」은 「미리엄」이 꽃의 향기를 맡는 태도를 보고 비난했던 때와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크레이러」를 관찰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때 「폴」의 관심은 「크레이러」가 꽃을 대할 때 보여준 그녀의 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굽혔을 때 밖으로 노출된 「크레이러」의 목덜미에 있음을 본다. 그리고 「미리엄」과의 관계에서 위축되었던 성적 좌절감도 「크레이러」에게 와서는 다소 회복되어 조금이나마 희생의 활력을 되찾은 것처럼 보인다. 「폴」은 지금 젊음이 회피할 수 없는 성숙에 도달해 있다. 「폴」은 이제 어머니도 「미리엄」도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차지하려 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 빠져 있다.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폴」이 풀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디렘머라 할 것이다. 「폴」을 소유하려는 「미리엄」과의 갈등이 한차례 지나간 후에 「폴」은 지금 어머니와의 유대로부터 「폴」 자신의 해방이라는 전혀 새로운 장애를 헤쳐 가야 하는 고비를 맞은 것이다.

이즈음 「모렐」부인은 아들이 양가집의 어떤 참한 규수와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폴」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높은 데로의 욕망과 낮은 데로의 욕망이라는 두가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와 아들은 이제 인생문제를 두고 긴 논의를 편다. 아들은 자신이 보통사람이고자 한다. 그는 자신이 유복한 중산층에 속하고 싶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그는 자신이 하층계급에 속한다고 믿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지론을 편다 ;

‘사람과 사람간의 차이는 계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개인에게 있다. 우리가 운위하는 사상이라는 것은 중류계급에서 나오는 것이며 하층계급으로부터 우리는 생명, 그 자체의 온기를 얻는다.’ 는 것이다. (S/L 313)

「폴」과 「미리엄」의 사이에 육체가 들어오지 못하였음을 이미 선언하고 있을 때에 나온 ‘생명, 그 자체의 온기’ 는 「미리엄」의 정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폴」의 마지막 의지이다.

「폴」은 그가 「미리엄」과 같이 있으면서도 그녀를 완전히 소유하지 못했던 괴로움을 알고 있었다. 그는 「미리엄」이 죄다 뺏아 가기만 하고 아무것도 주는 것은 없다. - She took all and gave nothing. S/L 357 - 고 했다. 그러니 이제 「폴」이 그녀를 찾는다 함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찾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미리엄」으로 말하면 그녀가 「폴」에게 최소한 싱싱한 정열을 주지 못하였고, 더구나 생기를 맞볼 수도, 생명을 발산하는 일도 없었다. - at least, she gave no living warmth. She was never alive, and giving off life. S/L 357 - 8 - 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리엄」은 「폴」의 양심일 뿐, 배우자는 될 수 없다 - She was only his conscience, not his mate. S/L 358 - 는 것이 「나레이터」의 판단이다.

「폴」은 자신이 바로 「미리엄」의 종교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어머니는 아들이 이제 「미리엄」과 손을 끊고 사랑하지도, 결혼할 생각도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나중에는 필시 「미리엄」을 찾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다. 그만큼 「폴」이 「미리엄」을 사랑하고 있음을 어머니는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늙어, 자신의 아들에 대한 지배력이 한계에 와 있음을 본능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폴」은 「미리엄」과 자신 사이에 있었던 사랑의 행동 뒤에는 ‘실패와 죽음의 감정’ - S/L 355 - 만이 남아 있었음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여자와 헤어져 본 다음에야 평가해 볼 일로 미루어 버리는 행동으로 자신을 숨기며 온당치 못한 자기 합리화의 길을 택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미리엄」에게는 우리 서로 헤어지자고, 나도 당신도 서로에게 자유이고자 한다. - ‘I want us to break off - you be free of me, I free of you’. S/L 360 - 고 말하는 뻔뻔스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폴」의 태도에 대해서 「미리엄」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 그녀는 침묵하고만 있지 않는다. 「폴」은 예상하지 못한 「미리엄」의 저항에 부딪힌 것이다.

「미리엄」은 우리 사이가 긴긴 투쟁이었어요. 당신은 절 피하려고 투쟁하고 있었어요 - “It has been one long battle between us - you

fighting away from me.”(…) ‘Always, from the very begging – always the same!’ S/L 362 – 라고 선언해 버리는 것이다. 그래 떠나려면 떠나라! 혼자 남는 존재가 되면 그만 아닌가!

「폴」은 「미리엄」이 처음부터 연분이 아니라는 어머니의 위로가 있었으나 그 또한 개울 속에 던져진 존재의 쓰라림을 느끼는 것이다. 여기서 「나레이터」가 개입하고 있는 두사람의 자세에 대한 설명을 주목해 보기로 하자.

「미리엄」은 「폴」이 자신을 가지려 한다면 그의 영혼을 차지하기 위하여 자기를 변신할 결심이다. 그런데 「폴」이 그녀를 함정에 빠뜨려 놓고서 무책임하게 방임해 버렸다는 그에 대한 비난은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욕망 충족의 과정에서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육신의 접촉마저도 상대를 추상화 하기 전에는 불가능한 여자가 되어 있어 「미리엄」이라는 여성은 「나레이터」에 의해 – 삶, 그 자체의 온기 – 라는 「폴」의 대의를 부정하는 여인으로 규정되어 버리는 것으로 사실상 두 사람의 관계가 여기쯤에서 완전히 정리되어 버리는 느낌이다. 「폴」의 무능력은 일방적으로 가려진 채 작가 「로렌스」의 생명력의 유대에 대한 입장만이 슬회되고 있는 것이다.

「미리엄」이 고집하는 영혼으로부터의 흡수에 맞서서 이에 정면으로 대응해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 「폴」의 태도이다. 그것은 당신이 원래 정신적이며, 그러나 난 정신적이고 싶지 않다는 「폴」의 언행이 이를 잘 설명해 준다. 자신의 영혼을 가진자가 어머니임으로 「미리엄」과의 자연스런 육체적 접촉이 가능한 일이 아님을 「나레이터」는 구차하게 설명해 왔으며 「미리엄」의 편에 서서도 「나레이터」는 역시 이런 말로 – she always wanted to embrace him, so long as he did not want her. S/L 233 – 「미리엄」의 심리에 개입함으로써 「폴」의 속성을 그녀가 이미 양해하고 있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 6

G. Salgado는 제2부가 시작되면서 ‘작가와 주인공의 사이의 거리가



꾸준히 좁혀오고 있다. 어떤 때는 그 거리가 완전히 사라지기도 한다.' 4)고 했다. 그는 「폴」과 「미리엄」이 펼치는 사랑의 관계를 육체와 정신, 낭만과 현실, 종교와 관능의 단순한 대립으로 보지 말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see p.28). 그러나 「폴」과 「미리엄」의 관계가 「실패로 끝날 운명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레이터」의 개입에 의해서 적절히 설명 되고있다.

「미리엄」과의 접촉에서 통찰력을 얻은 것은 「폴」이었다. 어머니에게서 얻은 생명의 따스함을 백열화 한 것도 「미리엄」이었다. 그러나 성숙의 과정에서 육체적으로 억압된 좌절감은 모두에게 고민스런 자기분열을 가져다 준것이다. 「모렐」부인과 「미리엄」이 벌이는 쟁투에서 「폴」이 받은 갈등의 상처는 그래서 더욱 큰 것이었다. 「크레이터」를 사랑하는 「폴」은 그때 이미 육체적 사랑과 정신적 사랑의 갈등 때문에 선명치 못한 방향의 행로를 걷기 시작했던 것이다.

「폴」이 「크레이터」로 인해 정신적 발달의 한 단계를 결정짓는 계기로 삼고 그 때를 「미리엄」으로 부터 탈출하는 기회로 삼은 것은 어머니의 지배로 부터 탈출이라는 또하나의 국면과 함께 「폴」의 인생을 규정하는 새로운 출발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새국면은 「폴」의 인생을 피할 수 없는 종말과 새출발의 기약이라는 동시적 상황을 맞게 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폴」과 「미리엄」의 관계에서 표출되는 여러가지 조건은 운명지어진 목적지가 당초부터 계획된 것이었다 해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이 소설의 후반부는 「폴」과 「미리엄」이 어떤 식으로든 갈라 서게 할 수 있겠는가를 궁리하는 의도된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두의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제 이부의 서두에서 「폴」이 「미리엄」의 personality를 헤집고 있는 것은 「미리엄」에 대한 「폴」의 의도적인 공격의 시작이었음이 비로소 분명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Salgado가 말하는 Jessie의 '분통' - we understand and sympathize with the real-life 'Miriam's' chagrin over the novel, - 5)은 바로 그 시점에서 비롯되었고 이별을 위한 갈등의 심화과정은 그보다 더 먼 시점에서 부터 준비되어 왔다 할 것이다.

「로렌스」는 「미리엄」이라는 여인을 보통의 인간 교제가 갖는 하찮은 일을 경멸 - they scorned the triviality which forms common human intercourse. S/L 184 - 하는, 그래서 사람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룰 기회가 막혀버린 존재로 그려놓았다. 자연의 사물을 볼 때에도 그렇다. 이를테면 새의 둥지나 꽃들이 「폴」에게는 있는 그대로 보이지만 「미리엄」이 그것을 소유하기 이전에 생명의 존재로서의 사물은 그녀의 상상이나 영혼을 거쳐 반드시 인격화 - anthropomorphic - 하는 작업을 통해서 자기의 소유가 되는 과정을 거치는, 아주 어려운 여자로 규정해 둔 것이다. (See S/L 148,218)

그리고 그러한 그녀의 성향이 「폴」로 하여금 자연의 사물을 그렇게 보도록 자극하였다고 말함으로써 「폴」 자신이 처신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을 확대시켜 놓은 반면에 「미리엄」이 처신해야 할 입지를 상대적으로 좁혀 놓고 있는 것이다. 「미리엄」이 갖는 이같은 대물관이 「폴」에게는 커다란 불만인 것이다. 게다가 그녀의 종교적 태도를 문제삼아 다른 사람과의 생활이 단절되어 있는 여성으로 그려 놓은 것이다. 그녀와 함께 있게 될 때 느끼는 '항상 높은 수준의 추상의 세계' - the high plane of abstraction - 를 통한 영혼과의 접촉과 같은 통과례가 「폴」로서는 수용하기가 힘든 것이다. 「미리엄」의 영혼이 「폴」의 영혼과 접촉할 때면 그때마다 「폴」은 신체적으로 격통의 고통을 입게 되고 정신적으로는 의식분열과 같은 참기 어려운 심적 고통을 입는 것은 그것 때문이었다. (See S/L 214)

「폴」의 시기와 미움은 꽃을 대하는 그녀의 태도에서 절정을 이룬다. (See S/L 268) 「미리엄」이라는 여인은 사물을 그대로 두고는 안되도록 운명 지어져 있는 것이다. 꽃의 경우 그녀는 촉감으로 향기를 끌어내고 있다고나 할까? 그녀가 대하는 것은 꽃이 아니라 꽃 속에 담겨 있는 향기이며 사람으로 말하면 정신과의 접촉인 것이다. 어쨌든 「로렌스」는 「미리엄」이라는 여인이 「폴」까지도 쉽게 이해 하기가 힘든 여성으로 이 여인의 이해에는 상당히 긴 시일이 필요했다고 썼다. (See S/L 185)

그러면 「폴」이 「미리엄」을 이해 하는데 보내는 긴 시일은 결국 무엇

을 위한 시간이 되고 있는가? 일찌기 「폴」이 '나는 정신적으로 되긴 싫다'. - And I don't want to be spiritual! S/L 232 - 며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한 그는 「미리엄」의 영혼에 대항하여 자신의 영혼을 맞대응해 나가지 않을 뜻을 명백히 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리엄」은 「폴」의 영혼이 자기에게로 돌아 오리라는 기대에 차 있는 동안에 「폴」은 이미 자신의 영혼을 쥐고 있는 사람이 어머니임을 확실히 해 두고는 추상적 의지로 접근해 갈 수도 있는 「미리엄」에 대한 신체적 접근의 욕구마저도 그녀가 마다 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자제하는 것이다.

「미리엄」은 「폴」이 자신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의 과격성에 비추어 그녀는 시종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올 「폴」을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에 접어 들고 있다. 언젠가는 자기의 의견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는 기대와 무엇보다도 「폴」이 욕구하는 대상이 자신일 수 밖에 없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폴」이 그녀를 구르기 시작했을 때 공중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에게서 매혹을 느끼고, 온기에 젖어 난생 처음으로 남성에게 비위를 맞추고 양보하는 기쁨을 감득 했던 그 때 부터 「미리엄」의 외로운 투쟁은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때 이후 「미리엄」의 내심에 부끄러움으로 숨어 있던 초기의 성적 회열이 정신적인 성장과정에서 정신과 육체간을 넘나들면서 겨우 생명력의 회열에 눈을 뜨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신은 그래도 정신주의자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다.

뒤돌아 보면 일찌기 「폴」이 Leivers가를 찾았을 때 부터 그는 「미리엄」과의 개인적 차원의 친밀도를 갖자 마자 곧 이어서 그녀와의 우정에만 매달리지 아니하고 가족들과의 유대관계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정신적인 어떤 순화과정을 맞는다고 할 수 있지만 「미리엄」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모처럼 생겨났던 내심으로 부터의 정념이 아무런 순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내심에 침잠해 버리고 만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정념은 무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 「폴」이 얻고 있는 예술에의 통찰력이 「미리엄」으로 부터 비롯된 것이었고, 그의 예술을 백열화 시킨 것도 또한 「미리엄」으로 부터 비롯되고 있었음이 사실이 아닌가?

정의적 갈등관계가 조금은 진정될 기미가 보이자 이번에는 생명력이라는 전혀 새로운 역동적인 이미지가 두 사람의 관계를 조여온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폴」은 「미리엄」이 겉과 속이 다른 그녀의 격렬함(See S/L 190)을 읽었던 것이다. 「미리엄」의 열화같은 감정에 짓눌려 「폴」이 초조해 하다니... 사실 「폴」은 자신이 「미리엄」의 육체를 감당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속으로는 그 두려움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폴」은 「미리엄」의 기쁨에 짓눌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녀의 동정이 한결같이 명상적인 데다가 산만하거나 방종스런 데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다. 「폴」이 '일종의 황홀경'에 불타고 있었던 「미리엄」의 눈을 보고 매혹을 느끼는 사태에 이르자 모처럼 발견된 「미리엄」의 우월한 성의식을 어머니에 대한 친밀감으로 비껴가면서 어머니와 함께 「미리엄」을 경원하는 쪽으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해 가고 있음을 본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정신적 기저를 그가 온건하고 건전한 - sane and wholesome - 어머니의 자식임을 감사하는 데서 찾고 있는 것이다.

일후 두사람 사이에 끼어든 어머니의 간섭은 「폴」에게서 보다 「미리엄」쪽에 더 깊은 고통을 준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 자신도 이제 더이상 선택의 주체는 아니었다. 그리고 「미리엄」은 「폴」에 의해서 자기를 드러낼 줄도 모르는 여자, 매사에 소극적이며, 성적 감정도 모르고 그 감정을 욕구 하지도, 욕구할 줄도 모르는 아둔한 여자 - a holy nun S/L 307 - 로 규정되어 버리는 것이다.

## 7

「폴」이 「미리엄」에게 보낸 고별의 편지(See S/L 307 - 8)를 보면 과연 「폴」이 의도하는 저의가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낭만적인 영혼을 지닌 - the girl was romantic in her son. S/L 177 - 그녀의 인생을 정신적이라는 이유로 육체가 들어 오는 것을 막아 버리고 당신이야말로 '죽음을 의미한다'는 말로서 「미리엄」에게서 인간미를 배제시켜 버리고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보통의 연애가 불가능 함으로 나는

평범한 기분으로 지낼 수 있는 여인을 찾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결별의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See S/L 307 - 8)

그가 비록 「미리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자신이 그녀에게 속해 있다고 잠깐씩은 생각도 했지만 치열했던 어머니와의 토론의 의미처럼 지금은 인생살이의 평범한 온기에 오히려 더 이끌리고 있는 「폴」을 발견하게 된다. 「폴」에게 있어서 평범에의 이끌림이란 곧 육체에의 탐닉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체의 성숙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한 것이다. 그것은 자신이 압도적인 Clara의 성을 선택 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폴」이 어머니의 소유로 부터 벗어나려는 깨우침인 동시에 「미리엄」과의 결별이라는 차가운 청산의 의지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두말할 나위없이 이 글속의 「폴」은 그 전거가 자신이며 이 소설이 자신에 대한 생각을 기술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이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Kazin의 이런 말은 새겨 볼 만한 말이 아닐까 한다. : ...the novelist who in our time is likely to have been all too mothered and fatherless, cannot help saying to himself. 6」 그러므로 이 글이 등장 인물의 상대였던 실제 인물인 「제시」나 자신의 비극일 일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는 Victorians의 심금을 울려주는 절규 the cry of a broken heart - - and of a broken victorian. 7」 - 라는 평가처럼 당대의 실황에 대한 격식없는 산경험의 기록인 점도 간과할 수 없지 않을까 싶다.

그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최고의 감수성 - sense of power - 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발견할 수 있는 타자의 진정한 삶 까지도 발견해 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타고난 그의 재능을 '신성한 소유물'로 알았던 그가 그의 한계와 조건을 몰랐을 리 없다. 그는 남성적인 'wildness'가 없었다. '삶, 그 자체의 온기'를 생명력의 제 일의로 내 세워온 그가 말하는 사랑이 '심리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 신화적인 신성불가의 의식과 관련을 맺고 있다' - Not love in the psychological sense of conscious consideration, but love in the mythological sense of a sacred connection. 8」 - 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을 통해서도 보아 알 수 있듯이 사랑에 관한 한 그의 지론은 그가 가진 지병 - damaged lungs - 으로 인해 죽을때 까지 그가

주창하고 수호해야 할 자신만의 영혼이고 pride였을런지도 모를 일이다. 「미리엄」의 열어둔 감정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를 닫아 놓고 있는 「폴」의 당혹을 생각해 본다. : 「로렌스」는 그가 추구하는 이상에 쫓아 「폴」로 하여금 그의 정신계 - demon - 에 들어오고자 하는 「미리엄」의 의도를 피해 나간 것이다. 그리고 「나레이터」, 그는 「미리엄」과 「폴」의 이같은 거리를 규정한 또하나의 「로렌스」였다.

### References

- Text, Sons and Lovers, by D. H. Lawrence, 1981 Penguin Book.
1. Son of Woman The story of D. H. Lawrence, J. M. Murry, 1931 Jonathan Cape, London. p. 30
  2. *Ibid*, 1. p. 29
  3. *Ibid*, 2. p. 34
  4. D. H. Lawrence : Sons and Lovers, Gamini Salgado, 1974 Edward Arnold pub., p. 26
  5. *Ibid*, 4. p. 59
  6. D. H. Lawrence - a collection of criticism - , Leo Hamalian, 1973 McGraw - Hill, Inc. p. 22
  7. D. H. Lawrence and "Sons and Lovers" sources and criticism, Harry T. Moore; "The Genesis as Revealed in The Miriam Papers", p. 62. Ed., E. W. Tedlock, Jr. New York Univ. Press, 1965
  8. *Ibid*, 6. p. 24. "Sons, Lovers, and Mothers" by Alfred Kazin

